

제 목	국 문	일부 중소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산업보건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영 문	A Study on the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종태 <sup>1)</sup> , 류수경 <sup>1)</sup> , 엄용태 <sup>1)</sup> , 최재욱 <sup>2)</sup> 1)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및 환경의학연구소, 2)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영 문	Jong-Tae Park, Soo-Kyung Rhyu, Yong-Tae Yum, Jae-Wook Choi Dept. of PM, Korea Univ., Dept. of Social Medicine, Hallym Univ.		
분 야	산업보건관리	발 표 자	박 종 태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1. 연구 목적

중소규모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및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여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치 받지 못하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측면에서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 방법

연구기간은 1993년 5월에서 1993년 9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하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이들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연구는 조사자가 대상사업장을 방문하여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여부, 채용근로자 수, 국적, 성별, 연령, 학력 등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근로시간, 급여,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작업부서와 유해인자 폭로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외국인이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표라고 파악된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영문 혹은 국문으로 작성한 설문지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건강상태,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보호구 지급 등과 같은 안전보건관련 항목 등이었다.

### 3. 연구 결과

총대상사업장 133개소 중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36개소로 27.1%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대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12,300명 중 외국인 근로자 241명으로 중소기업 제조업 노동인구의 1.96%에 달하고 있었다. 이들의 국적은 필리핀(34.0%), 중국(31.1%), 방글라데시(19.9%), 스리랑카(3.7%), 파키스탄(2.9%), 기타(8.3%)의 순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1.8세, 학력은 대졸(68.6%), 중고졸(28.6%), 국졸(2.9%)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6.3시간(54시간-81.5시간)이었으며, 월평균 급여는 38만원(17만원-60만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혹은 입국시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는 19.5%이었고 일반건강진단은 29.6%, 특수건강진단은 7.1%만이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유해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226명(93.8%)이었으며 유해인자별로는 소음(42.5%), 유기용제(22.6%), 분진(15.0%), 특화물(13.7%), 중금속(6.2%)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작업환경은 자신의 본국에 비해 열악하다(42.9%), 비슷하다(28.6%), 덜위험하다(14.3%)로 나타났으며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정기건강진단(26.5%), 작업환경의 개선(26.5%), 보호구 착용(20.6%), 작업시간 단축(11.8%), 보건교육(8.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자 연장이 된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근로자는 91.2%, 사업주에서는 전체사업장의 91.7%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연장을 바라고 있었다.

### 4. 고찰

1993년 8월 현재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65,345명이나 실제 순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만여명에 불과하며, 이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는 58,00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국내의 제조업 및 사회 각분야에 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나듯이 외국인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관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